

제목: 존 롤즈 <Justice as Fairness공정으로서의 정의> 48절

요약번역자: 이한

§48. 인두세와 자유의 우선성에 관한 노트 (A Note on Head Taxes and the Priority of Liberty)

1 48.1 인두세에 대한 간략한 노트가 천부적 재능의 분포를 공동 자산으로 간주하는 합의를 차등의 원칙이 표현한다는 의미 뿐만 아니라 자유의 우선성을 명료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맑스에 의하여 인용된 격률 precept 을 상기하라. 맑스는 이 격률이 공산주의 사회의 마지막 단계에서 충족되리라고 생각했다. “각자의 능력에 따라 일하고 각자의 필요에 따라 분배.”(주석33) 만일 우리가 이 정의의 격률을 받아들인다면, 일단 사회가 인두세(럼프섬 세 lump sum tax)를 천부적 재능에 과세하면서, 더 나은 재능을 갖춘 이가 더 높은 세금을 내게 하면, 차등의 원칙이 그 격률을 만족시킬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의 인생 전망에서 소득과 부에 있어서의 불평등은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더라도 크게 줄어들 것이다.

3 이 제안에 대하여 두 개의 결정적인 반론이 있다. 첫번째 반론은 단순히 실용적인 문제로 보일지도 모르나, 실은 더 심층적인 부분을 지적한다. (cuts deeper) 그것은 다음과 같다. 그러한 강제적인 세금을 정당화함에 있어 확신을 갖게 할 (실현된 재능과 반대되는 의미에서) 천부적 재능을 측정할 아무런 방법이 없다. 더군다나 일단 제도화되면, 그 세금은 공공 지식이 되어 사람들은 세금이 부과되는 나이를 넘어서기 전에는 그 재능을 실현하지 않을 강한 인센티브를 가질 뿐 아니라 그들의 재능을 감출 강한 인센티브를 갖게 된다. 그리고 그 세금이 부과되는 나이는 언제로 할 것인가?

4 다시금, 우리가 (§16, 20에서) 살펴보았듯이 지능 및 (노래하고 춤추는 것 같은) 다양한 천부적 능력은, 항상적인 수준의 능력으로서 고정된 자산이 아니다. 그 재능은 그 자체로 단지 잠재적인 것이며 실제 그것의 실현은 사회적 조건에 달려 있다. 그 사회적 조건 가운데는, 그 재능의 출현, 격려, 인정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회적 태도가 있다. 천부적 재능의 활용가능한 측정 수단은, 심지어 이론에서도 터무니 없는 것(out of question)으로 보인다.

5 48.2. 그러나 우리 논의의 목적을 위해 유관한 관점은 인두세가 자유의 우선성을 위배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요구되는 기간 동안의 세금을 지불할 만큼 충분히 소득이 높은 직업에 종사하도록 강제한다. 그것은 재능 있는 자들이 정의의 원칙의 범위 내에서 그들의 삶을 영위할 그들의 지위를 간섭하게 된다. 그들은 예를 들어 그들의 종교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큰 어려움을 겪을지도 모른다. (역자- 세금 지불하느라 허리 휘게 일해야 되기 때문에 종교 생활 할 시간이 없다) 그리고 그들은 저소득이긴 하지만 가치 있는

직종(vocation)이나 직업(occupation)을 갖지 못하게 될 지도 모른다. (역자- 돈 많이 버는 변호사가 될 능력이 있는 사람이지만 실제로는 돈을 별로 받지 못하는 시민단체 활동가 일을 하고 싶어할 수도 있으나 세금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울며겨자 먹기로 변호사해야 한다.)

6 이 논지는 명료하며, 우리의 천부적 재능이 사회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라는 추가적인 측면을 드러내준다. 즉 우리는 우리의 재능이 부여했는지 모르는 이점을 평등화하려는 인두세를 부과받을 수는 없다. 그것은 우리의 기본적 자유를 침해할 것이다. 차등의 원칙은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운 좋게 재능을 부여받았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불이익을 가하지 않는다.(penalize) 그렇기보다는 차등의 원칙은 그 좋은 운으로부터 더 많은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재능을 훈련하고 교육하며 덜 가진 이들의 이득에 기여하는 사회적으로 유용한 방식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한다.